

전주-완주 통합 투표 향방, 행안부장관 손에

윤호중 장관 25일 6자 간담회 주관
완주 “투표 전 반대 여론조사” 요청
간담회 결과 따라 투표 시행 갈려
행안부 결정 방침 수용하기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25일 “전주·완주통합 방식에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으나 행안부장관인 저에게 (통합 문제를)맡기고 지역 의견을 존중해서 조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주·완주통합과 관련, 전북도지사와 안호영(완주), 이성윤(전주)국회의원과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6자 간담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의 시행 여부 등을 전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인 자신이 위임받았다는 설명이다.

시·군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당사자인 시·군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렴해서 주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전주시의회와 달리 완주군 의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에 통합을 찬성하는 완주군민들이 통합을 추진해 달라고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이 건의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장관이 이날 이해당사자



완주 전주 통합논의 6자 간담회 전주완주 통합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안호영 이성윤 의원, 김관영 전북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간 ‘6자 간담회’가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사진=전북도>

인 전북도와 전주·완주 시장·군수,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른바 6자 간담회를 주관하고,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위임 받은 것이다.

윤 장관은 또 “그동안 주민들의 통합 논의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 충분히 들었다”면서 “참석하신 분들이 이 (통합)논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서둘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저희는 모든 결정을 행안부장관님께 내려달라 이야기 드렸다”며 “반대 여론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투표

를 가자고 주장했다. 어떻게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행안부 장관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며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통합에 관한)주된 이야기는 주민 투표 해서 결정을 할 것이었다”면서 “최종 결론은 장관님께서 전체적 의견을 고려해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다”며 행안부장관에게 위임했음을 밝혔다.

물론 안 의원은 “(통합문제)완주전주 갈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전주 완주가 서로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협력하는 특별자치단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근본적으로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결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비롯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받아드리기로 한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한다면 10월 22일이나 29일에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 결과에 따라 행안부가 조만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우선 통합 여론 조사를 실시한 뒤에 통합 의견이 많은 경우,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중앙아시아서 ‘소리와 색’ 문화교류의 장 펼쳐



전북도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소리와 색으로 만나는 전북’ 프로그램을 열고 중앙아시아에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전북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판소리·한지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북청년경제인·고려인경제인
타슈켄트부천대 3자 협약 체결

전북도가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전북의 소리와 색으로 깊은 문화적 울림을 전했다.

도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소리와 색으로 만나는 전북 프로그램을 열고 중앙아시아에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첫날 타슈켄트 부천대학교에서는 대학생 200여 명과 고려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소개와 유학 안내, 국악교실(진도아리랑 배우기), 판소리 공연, 한지 청사초롱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다.

전주 판소리 합창단은 춘향전, 광야, 유관순 열사가 등을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앵글 무대로 부른 우즈베키스탄 인기곡 Hayolim Senda는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묶으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국악 버전의 Golden 무대는 K-팝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며 현지 청년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청년경제인협회·고려인경제인협회·타슈켄트 부천대학교 간 3자 협약도 체결돼 향후 경제 분야 교류·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

25일 저녁에는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한 국경일 리셉션 무대에 전주 판소리 합창단이 올라 흥보가, 신밧대, 기약 합주 등을 선보였다. 현지 장·차관 등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현지 참석자들은 “판소리와 한지를 직접 경험하며 전북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백경태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전북의 문화와 교육을 현지 시민과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은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서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추진단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 주관 제7차 추진 회의
전북, 농생명·문화관광·첨단 등
입법과제·맞춤형 특례 발굴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주 한옥마을 동헌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제7차 상생협력 추진단 회의와 제2차 실무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정일환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와 특별자치 담당, 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상생협력 추진단 회의는 ‘5국 3북’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2023년부터 국조실과 4개 특별자치시도가 순차적으로

개최해온 협의체다. 이번 전북 회의에는 특별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여해 제도 발전과 입법 동향을 공유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다.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전체 특별자치시도 지원방안과 제도 발전 방향을, 행정안전부는 입법 동향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공고화 등 특별자치시도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문화관광·미래첨단산업 등 5대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입법과제와 맞춤형 특례 발굴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 특성을 살린 혁신 정책과 정주여건 개선 성과,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후·산림·관광 분야 특화 전략을 각각 발표하며 협력 방안을 모

색했다.

회의 후 진행된 소통 워크숍에서는 참석자 40여 명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교류하며, 논의된 현안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상생협력 추진단 회의’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상생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제주에서 소통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 ‘K-김’ 산업 선도…지속가능 생태계 구축

김 양식장 확대…생산액 6배 증가
고창전통지주식김양식복원 성공
27년 새만금 연간 3만톤 물김 가공
스마트·친환경 K-김 생태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한류 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K-김’ 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 해면 양식업의 대표 품종인 김은 수산물 총생산량의 79.9%(3만 3,254톤), 생산액의 63.6%(661억원)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2024년 전북 농수산물품 수출액 5억 9,700만 달러 중 김(마른김+조미김) 수출액은 4,380만 달러(7.4%)에 달한다.

도는 지속 확대되는 김 산업 수요에 발맞춰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2019년부터 제한됐던 신규 김 양식장 개발을 지속 건의한 결과, 2024년 470ha의 신규 승인을 확보했다. 이로써 도내 김 양식장 면적이 5,600ha로 확장됐으며, 2015

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량은 1만 2,605톤에서 3만 3,254톤으로 2.6배, 생산액은 111억 원에서 661억원으로 5.9배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고창 지주식 김 양식장 복원에서 성과를 거뒀다. 한빛원전 피해보상으로 중단됐던 전통 지주식 양식장을 도·고창군·윤준병 의원의 협력으로 7월 수심 제한 완화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달에는 한빛원전과 기존 154ha에서 46ha 늘어난 200ha 규모 개발에 합의했으며, 9월 22일 해양수산부의 개발승인을 받아 도내 유일한 전통 지주식 김 생산이 재개돼 40여 어가가 연간 30억 원 규모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도는 확대된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7억 4,600만원을 투입해 김 양식어가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주요 사업은 ▲우량 김 종자 보급(8억 1,300만원) ▲활성처리제 공급(3억 2,300만원) ▲영양물질 지원(2억 3,700만원) ▲노후 양식어구 교체(6억 7,500만원) ▲물김포대 및 친환경 인증부표

교체(6억 9,800만원) 등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 김 생산 기반 강화와 함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양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단순 물김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수출을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새만금국가산업단지 2공구에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를 조성 중이다. 2027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총 12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며, 이중 마른김·조미김 가공업체 6곳이 포함됐다.

본격 운영 시 연간 3만 톤의 물김 가공이 가능해져 현재 도내 김 가공업체 8곳의 1만 8,000톤 가공 능력을 웃돌게 된다. 가공시설 부족으로 인한 물김 가격 불안정 문제에 해결될 전망이다.

도는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에 383억원을 투자하고, 입주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수 인·배수시설(112억원), 배출수 정화시설(30억원), 내부도로(30억원) 등 총 172억원을 추가 투입하며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는 생산·가공·저장·물류·수출이 결합된 원스톱 시스템

을 구축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김 산업의 수출 확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치도는 단순한 생산량 확대가 아닌,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K-김 산업 생태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기반 확충, 가공·수출 인프라 구축, R&D를 통한 스마트 육산양식까지 망라해 김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김 생산·가공·연구 거점을 목표로 정부·연구기관·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세계 식품시장에서 ‘K-김’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할 것이다”며 “전북이 구상하는 김 산업의 미래는 단순한 수산업을 뛰어넘어 첨단 연구와 친환경 가치,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의원 ‘2025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지방발전 견인 입법활동 활발
국회출석율 지역구활동 등 평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제13회 2025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날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생을 위해 헌신해 온 국회의원을 선정·평가하는 자리였다.

2025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윤 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36년 공직 경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실제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 ‘농어촌유학’의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또 윤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주거·교통 인프라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앞장섰다. 농어촌 공간의 재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농어촌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지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의 지속가능성(地産地消) 기틀을 마련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 법률안’ 등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발전을 견인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이밖에 윤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고창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 순회하며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 브랜딩인 ‘토방청담(土訪廳談)’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의 입법 및 정책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5 대한민국 의정대상’에 수상자로 선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주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읍시민과 고창군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윤준병 의원

전북 출연기관 ‘소통의 날’…문화·관광·콘텐츠 협력 모색

전북도·콘텐츠진흥원·관광재단
제4차 소통의 날 간담회 개최
글로벌대학30 과제 추진상황 공유

전북도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연기관 간 정기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5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관광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문화·관광·콘텐츠 소통의 날’을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수행 중인 전북대 글로벌대학 30 지역상생사업 과제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교육부가 2025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북대와 원광대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은 전북대 글로벌 30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형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조성사업(22억 원, '25~'26년)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원스톱 지원사업(18억 원, '25~'26년) 등 2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총 4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는 AI와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접목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원스톱 지원사업은 XR 스튜디오 교육실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며, 매년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새롭게 조성된 커뮤니티 라운지와 XR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활용 방안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커뮤니티 라운지는 도내 콘텐츠 기업과 개발자, 투자자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로, XR 스튜디오는 이론과 실습, 결과물 제작까지 연계되는 실무형 교육 공간으로 운영된다.



도는 25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문화·관광·콘텐츠 소통의 날’을 열었다.

<사진=전북도>

다.

이경영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장은 이에 대해 “정기적인 도·출연기관 소통 간담회는 각 기관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출연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새롭게 조성된 커뮤니티 라운지와 XR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활용 방안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커뮤니티 라운지는 도내 콘텐츠 기업과 개발자, 투자자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로, XR 스튜디오는 이론과 실습, 결과물 제작까지 연계되는 실무형 교육 공간으로 운영된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양현초 학생 150명 의정 체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주최한 청소년 모의의회가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모의의회는 전주 양현초 6학년

학생 약 150명으로 29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의장, 의사담당관, 의원 등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 의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회 선언을 시작으

로 안전 보고, 자유발언, 찬반 토론, 최종 표결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도의원은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직접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도전과 참여를 응원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보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본회의 일정과 조율,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추석 연휴기간 임도 한시적 개방

○ 시군별 임도 개설 현황 (단위 km)									
군산	34.78	남원	142.35	진안	215.38	임실	178.8	부안	55.18
익산	46.89	김제	49.43	무주	137.19	순창	174.79	도원	95.98
정읍	137.19	완주	163.9	장수	158.52	고창	145.29		

27일~10월 19일 도내 1,741km
소각행위·임산물 채취 금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내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북에는 산림 경영·관리를 위해 총 1,741km의 임도가 조성돼 있다. 도는 임산물 도난 위험이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27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다만 임도는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

고 급경사·급커브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유지하고, 낙석이나 차량 전복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은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묘지 주변 나무 훼손, 성묘 후 쓰레기 소각, 산양삼 등 임산물 불법 채취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므로 반드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환절기 질환, 예방법



꾸준한 운동



풍부한 비타민성 음식섭취



적당한 수분 섭취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전주시, 추석 연휴 387개 병·의원과 153개 약국 문 연다

응급의료기관 6개소

추석연휴 24시간 가동

전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일부터 9일까지 의료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약국 등 지역 내 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내 총 387개 병·의원과 153개 약국 등이 문을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4시간 응급실은 전북대학교병원·예수병원·대차인병원·전주병원·호성전주

병원·고려병원 6곳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된다.

특히 심야 시간에도 이용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3개소(사랑약국·염약국·365인후대형온누리약국)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보건진료소 3개소(중인, 금상, 도덕)는 당번제 근무 방식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 상황실을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별 전담책임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063-281-6200, 063-250-3900) 및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에 타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보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 제공(e-gen)’ 앱을 통해 전국의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응급’ 또는 ‘응급의료’로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 현

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설치하여 감염병 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단 설사 환자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황 근무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추석 연휴 동안 전주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귀성객, 관광객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 상황실 및 감염병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시군의회회장協, 제293차 월례회서 현안논의

기초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축구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회장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5일 임실군의회에서 제293차 월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관련 기사 9면)

이날 협의회는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이 제안한 ‘기초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축구 건의안’과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이 제안한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경 건의안’,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을 비롯한 4개 시의회 의장이 공동 제안한 ‘전북특별자치도민 권리 보장을 위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육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기초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현재 기초의회 사무관급 교육은 단기 과정에 머물러 정책·입법·예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기초의회 공무원 전용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경 건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보전지구 및 일반보전지구 지정으로 주민 친수공간과 관광자원 활용에 제약이 많다”며 “일부 구역을 친수지구로 변경해 생활 복지와 관광 기반을 동시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서는 “노후 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로 규정돼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생활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구제제도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관우 회장은 “이번 건의안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불편 해소, 도민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협의회는 채택된 안건이 국회와 정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건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보전지구 및 일반보전지구 지정으로 주민 친수공간과 관광자원 활용에 제약이 많다”며 “일부 구역을 친수지구로 변경해 생활 복지와 관광 기반을 동시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민 권리 보장을 위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현실이다”며 “가사·소년 사건 증가에 대응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서는 “노후 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로 규정돼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생활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구제제도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관우 회장은 “이번 건의안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불편 해소, 도민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협의회는 채택된 안건이 국회와 정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도내 업체 공사참여율 제고” 강력 건의

전북특별자치도-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23일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률 제고를 위해 롯데건설 본사를 합동 방문했다.

이번 롯데건설 본사 방문에는 전북자치도 건설정책, 손민 건설수주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수립된 전북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설명하고 지역업체를 활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관내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23일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률 제고를 위해 롯데건설 본사를 합동 방문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

며 “도내 업체 공사 참여율 제고”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롯데건설은 “전북자치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협회의 건의를 면밀히 검토·반영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비롯한 상생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수주팀은 지난 2019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함께 대형건설사 본사를 방문하며 전북 건설산업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매년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대형 공사 현장을 찾아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오는 10월부터 지급 6개월 이상 근로활동 시 50만원 1년 이상 근무시 추가 1백만원

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근무 성과와 자립 성과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제도로, 앞으로는 참여자가 민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이어가면 50만 원, 1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0월부터 거주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2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6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466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했다.

김현욱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창업과 생계급여 탈수급을 뒷받침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근로 지원을 넘어 성과와 자립을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대상자 및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실시

2025-2026절기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50-64세 전주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이다.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9세 미만)는 지난 9월 22일부터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13세) 및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령대별로 나누어 △75세 이상(1950년생 이전)은 10월 15일부터 △70-74세(1951-1955년생)는

10월 20일부터 △65-69세(1956-1960년생)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은 관내 345개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주시에 주소를 둔 50-64세의 취약계층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자)의 경우에도 10월 22일부터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면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서 백신 소진시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인 만큼 예방접종 효과 지속 기간(평균 6개월)을 고려하여 10~12월에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플루엔자의 유행 확산 방지와 합병증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들의 질병 부담 감소를 위해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있다.

단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생명에 위협적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르신 독감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두 백신의

접종을 원하는 경우 같은 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겨울철 감염병 유행 예방과 집단면역을 높이는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진안군 하천·하구 정화활동 실시

유관기관 합동 쓰레기 수거 올해 2589t 재활용·소각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지난 24일 진안군 부귀면에서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행사를 실시했다.

하천변이나 수중에 침적된 쓰레기는 집중 강우 이외에도 주기적인 수거 활동을 필요한 것으로 환경청은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과 진안군 직원 약 30명은 부귀 정자천 일대 산재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행사 목적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하천·하구 부유쓰레기에 따른 지역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전북지방환경청 국고보조사업에 도내 14개 지자체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2589t 하천·하구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7-8월 집중호우에 의한 쓰레기 1334t은 그 활용도에 따른 재활용 및 소각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됐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 추진

치안활동 강화주력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는 주민이 안심하고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 귀성·귀경 인파 증가와 함께 범죄 사고의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예방진단단위(CPO)는 >112신고 현황 >범죄통계 등 여러 자료를 활용, 지역

주민 협력단체로부터 관내 불안 요인을 청취·분석해 치안수요를 분석하고 관내 범죄 취약지역 금융기관, 편의점, 원룸밀집지역 CCTV 작동상태를 합동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병 서장은 “추석 명절은 가을 행락철과 겹쳐 범죄 사고에 취약한 시기인 만큼 경찰서 전 기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2025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 개최

전북 금융산업 발전 방향 모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JIFIO)’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초연결시대, 금융·AI 융합이 바꾸는 미래’ 주제로 열렸다.

‘제6회 지니(GENIE)포럼’은 주요 행사로서 국내외 금융전문가·학계·대학생 등이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전북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피델리티(Fidelity),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즈(Allianz Global Investors) 및 웰링턴(Wellington) 등 글로벌 투자를 선도하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전문가들

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콘퍼런스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제럴드 가비(Gerald Garvey) 블랙록 매니징 디렉터(Managing Director)의 ‘AI기술을 활용한 알파수익 창출(A Focus On Alpha Delivery)’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 주제로 논의됐으며 두 번째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로 토론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1,269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무역協, 무역동향 보고서 발표 ‘전북도 수출 13위’

전년 동월 대비
수출 5.8%수입 11.8% ↓
중국 수출상대국 1위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25일 ‘2025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5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한 4억9162만 달러 기록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1.8% 감소한 4억3103만 달러, 무역수지는 6059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한 584억 달러) 중 8월 전북 수출은 0.84%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 기록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5대 수출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4,754만, -36.7%), 자동차(\$4,579만, 15.7%), 동계품(\$3,953

만, 80.4%), 정밀화학원료(\$3,111만, 28.5%), 합성수지(\$3,036만, -7.7%) 순이다.

권역별 수출은 북미·중동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북미는 전월 21.4% 증가에서 이번달에는 3.7% 증가에 그쳤다.

특히 이달 2024년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수출상대국 1위에 올랐다.

수출상대국은 중국(\$9,150만, 2.5%), 미국(\$9,049만, 5.5%), 베트남(\$3,430만, -30.6%), 일본(\$3,139만, 16.1%), 태국(\$1,628만, -19.4%) 순으로 수출국가별 비중은 중국 18.6%, 미국 18.4%로 매우 근소한 차이가 났다.

8월 전북의 대미수출 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지만, 직전월인 2025년 7월 대비 18.8% 감소세다.

박강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의 대미수출 상위 100개사의 수출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과반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											
구 분		2024					2025				
		8월	증가율	1~8월	증가율	연간	증가율	8월	증가율	1~8월	증가율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522	-8.7	4,451	-10.2	6,359	-9.8	492	-5.8	4,338	-2.6
	수입	489	9.1	3,732	-2.3	5,456	-0.7	431	-11.8	3,538	-5.2
	수지	33	-	719	-	903	-	61	-	800	-
전국	수출	57,643	10.9	449,917	9.9	683,609	8.1	58,360	1.2	453,827	0.9
	수입	54,055	6.0	419,747	-3.1	631,767	-1.7	51,848	-4.1	412,919	-1.6
	수지	3,588	-	30,169	-	51,842	-	6,512	-	40,907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25일 ‘2025년 8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이 같거나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 대미관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대미 수출은 크게 꺾이지 않아 수출에 대한 본격적인 영향은 시차를 두고 지켜보아

야 할 것’이라며 “협회는 대미수출 피해 기업 자금지원 및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이달 중 노란우산 분기납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 ‘톡톡’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한도 6백만원 공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600만원을 공제 받으려면 9월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이용해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갑작스런 폐업, 노령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로 매년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까지,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1억원 초과는 최소한도인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분기납이 가능하다.

또 분기납 이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2025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9월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하면 이미 지나간 7~8월분(3분기)까지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해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가입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600만원을 공제 받으려면 9월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이용해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한다.

혜택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라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3분기인 9월 노란우산에 가입해 절세

/정소민 기자

전주상진신협 ‘인식 공유 사업’ 대형 디지털시계 기증

시장 상인·방문객에
장바구니 나눔도

전주상진신협(이사장 김현정)은 지난 24일 대형 디지털 시계전달식을 가졌다.

상진신협의 시계전달식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사업이다.

상진신협은 앞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와 일화음봉투 사용절감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23년 11월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통해 1000여개 장바구니를 시장에 방문한 시민과 상인에게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두 번째 ‘인식 공유 사업’에 전달된 디지털 시계는 편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달식에는 전주상진신협 김현정 이사장을 비롯해 신 중앙시장 상인회 반봉헌 회장, 조합 임직원 12명이 참석했다.

김현정 이사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밑천원 장소로서 시장상인을 어부바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상진신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상진신협은 지난 24일 대형 디지털 시계전달식을 가졌다. 상진신협의 시계전달식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사업이다.

전북테크노파크 ‘2025년 선도기업 지역별 대표자 협의회’ 개최

기업네트워크강화
산업정보·지역현안 공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25일 ‘2025년 선도기업 지역별 대표자 협의회’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기업 (주)골드밴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산업 정보, 지역 현안을 공유했으며, 각 기업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전북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주)골드밴 기업 탐방 중 최근 이슈인 ▷관세 문제 ▷지역 인재 채용 어려움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선도기업 지역별 대표자 협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9회가 진행됐다.

지역으로는 전주, 김제, 군산, 익산 등이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성장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 기업 대표는 “(주)골드밴 생산라인 현안을 공유하며 전북테크노파크 지원 방안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혼자 고민했던 문제 인력난 및 국제 통상 등에 대해 다른 기업 대표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전북테크노파크 이종한 기업지원단



장은 “전북테크노파크 핵심 역할은 기업들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 ‘안전관리 강화’

농관원·전북도·농협
대한곡물협회 협력 교육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농관원 전북지원)은 25일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농관원 전북지원이 추진하는 ‘안전관리 강화’ 협의회는 2019년 시작해 현재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매입검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기관 역할과 상호 협력사항 점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전관리 강화’ 협의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 대한곡물협회 전북지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력 추진사항은 △(공통) 출하농가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농관원) 매입검사장 사전 점검, 부적합한 장소는 제외·변경 조치, 현장 내 운송

차량 이동경로 지정 △(지자체)매입 전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점검, 매입검사장 안전요원 배치, 안전수칙 현수막 게시 △(농협·대한곡물협회) 대형포대 상·하차 도우미 지원, 도우미·창고 내 작업자 안전모 착용, 지게차 주행속도(10km) 준수 관리 등이다.

아울러 농관원 전북지원은 같은 날 오후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협의회 및 안전교육은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에서 이어졌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과거 안전사고 사례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관계기관별 협력사항 등을 다뤘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이번 협의회와 교육을 통해 매입검사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매입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중소기업 ‘올 추석 자금 평균 4770만원’ 부족

800개사 대상 수요조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 대상으로 ‘2025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출액 규모(10억 미만~200억 이상)와 종사자 수 규모(10인 미만~50인 이상) 기준, 제조업·비제조업 각 4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추석자금사정 ‘원활하다’ 응답(18.5%), ‘곤란하다’ 응답 37.9%로 나타났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43.6%를 차지했다.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부진(64.0%)’, 이어 ‘원·부자재가격 상승(33.7%)’ ‘인건비 상승(24.4%)’ ‘△관매대금 회수 지연(17.5%)’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추석자금으로 평균 1억9780만원이 필요하다 응답했으며,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4770만원.

부족한 추석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결제 연기(40.4%) △납품대금 조기회수(30.8%) △금융기관 차입(30.5%) 순으로 응답했다.

또 추석상여금 지급계획에 대해 ‘계획이 있다’ 응답 기업은 50.6%, ‘미지급 33.0%’,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16.4%로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수준은 정률지급 경우 기본급 25.2%, 정액지급 경우 평균 78.3만원 순이다.

은행, 정책금융기관 통한 자금조달 여건은 지난해 추석 대비 ‘곤란하다’ 응답이 26.6%로 ‘원활하다’는 응답(14.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9.3%로 조사됐다.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유무에 대해서는 ‘없다’ 응답은 68.8%, ‘있다’ 응답은 31.3%로 파악됐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대출한도 부족(56.0%)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42.0%) △높은 대출금리(39.2%) 순.

추석 추가 휴무계획에 대해 전체 기업 절반 이상(55.6%)은 추석 공휴일 외 별도 휴무계획이 없으며, 평균 휴무일은 0.95일로 1일 미만인 수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도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부진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자금사정이 여전히 녹록지 않으며, 필요 자금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는 근로자 상여금, 휴무 여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금융권과 정책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LX공사-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국토의 미래를 잇다!’ 포럼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와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을 열었다.

LX공사는 지난 24일 일산 킨텍스 ‘2025 K-GEO Festa’에서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잇다!’ 주제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포럼은 지적재조사사업 연구성과와 수행사례,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시립대 이지

영 교수의 ‘일필지 지적도 개념 및 해외 사례, 국내 도입 방안’ △엘티메트릭 김상현 상무이사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LX공사 강상우 대리 ‘지적재조사 업무 효율화 위한 AI 기술 개발사례’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이 소개됐다.

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국토관리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학계, 산업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천호성 ‘스마트폰 프리 운동’ 제안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와 단일화 생각 해본 적 없어” 일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전북 교육미래연구소장)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제안했다.

천호성 전북교육미래연구소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며 “전북 청소년 스마트폰프리 운동본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0%에 달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다 학생들의

폭언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천 소장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실천 원칙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문화 조성, 중학교까지 자녀의 스마트폰 구매 자양, 부모 스스로의 사용 절제를 제시했다.

천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7월에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라고 덧붙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제안했다.

였다.

천호성 교수는 전북교육감 출마에 관련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해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와 단일화를 생각

해 본 적은 없다”며 “단일화와 관련된 질문은 아직 응답드릴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국회의원-교육청, 전북교육 발전 방안 모색

새 정부 교육정책 기조 맞춤 미래 비전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살려내자’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포함해 한병도·안호영·신영대·윤준병·이성윤·박희승 의

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발 맞춰 전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지역적 특수성과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맞춤형 지원 방안, 전북특별법 교육 관련 후속조치, 학습부진 학생 지원 강화 및 기초학력 보장 정책 등의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전북교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 모두가 ‘교육위원’이라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정지권이 교육청과 함께 발맞춰 나가며,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교육정책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원택 위원장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제1회 국회의원 교육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국회의원들과의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교육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의 교육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지권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최성민 기자

전국 1,702개 학교 ‘석면 위험’…전북은 1곳

전북교육청 ‘석면 제로화’ 달성 예정·타시도보다 앞서

전국 유·초·중·고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170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북은 1곳밖에 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는 경기 451곳, 서울 251곳, 경남 243곳, 충남 170곳 순으로 많았다.

전북은 초등학교 1곳으로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적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52%를 차지해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을 전면 제거한다는 계획에 따라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

중이나, 시·도 교육청별 사업 추진 속도에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석면 제거 사업 시작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면적을 파악한 결과 799개 초·중·고에 157만 451㎡ 규모에 달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까지 2천여 원의 사업비를 집중투자, 발 빠르게 대응해 타 시도 보다 앞서서 사업 시작 12년 만인 올해 도내 학교에서 석면 제로화를 선언했다.

전북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석면 제거 사업을 시작하고 12년 만인 2025년에 ‘석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전북교육청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이동통신업계 국내 최고 AI 전문가, 우석대 찾다

‘산업현장에서 본 AI 트렌드와 미래 인재상’ 특강 개최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최고 AI 전문가가 우석대학교를 찾아 급변하는 AI 시대의 미래를 제시했다.

우석대학교 RISE 특성화인재양성본부는 25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AI 권위자인 조중혁 LG유플러스 부장을 초청해 ‘산업현장에서 본 AI 트렌드와 미래 인재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레드바이오·스마트 A2케어·G2케어 성장발달 관련 학과 재학생 등 약 1천 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흐름을 직접 배우고 전공 및 진로와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석대학교는 이날 특강장에 입장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조중혁 부장은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발전 과정 △의료·헬스케어, 제조, 교육 등 산업별 AI 최신 적용 사례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직무 변화와 인간이 맡아야 할 핵심 업무 등을 소개하며 AI가 가져올 변화상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특히 조중혁 부장은 “데이터 리터러시, 융합적 사고, 윤리적 판단을 두루 갖춘 인재가 미래를 이끌 핵심이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에 맞는 실질적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전교조 위원장, 교육부장관 만나 ‘전주 M초’ 대책 마련 촉구

최교진 교육부장관 악성민원 문제 해결 강조

‘악성 민원 방지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단체장 간담회 시작에 앞서 악성민원 대책을 요구하며 옛새채 농성 중인 박 위원장에

게 “전북에서 농성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은 달려가서 위로를 드리고 싶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하고 싶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전교조전북지부는 밝혔다.

이어 진행한 간담회에서 박영한 위원장은 “학생도 교사도 죽어가는 시대에 위기감이 크다. 위기의 시대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화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공간인 학교가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악성 민원으

로 인해 교육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전주 M초는 전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게 지금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악성민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발언을 마친 박영한 위원장은 전주 M초 선생님의 손 편지를 최교진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재 전교조가 진행 중인 ‘공교육 정

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불가하게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악성민원인을 제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인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익적 차원의 악성민원 처벌 강화 등을 취지로 다음과 같은 요구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청원은 시작 일주일 만에 1만 5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어 다음 달 18일 까지 5만명 동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익산시, 27~28일 김동문 올림픽 제패 기념 배드민턴대회' 개최

익산에서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전설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전국 규모 배드민턴 대회가 열린다.

익산시는 '익산주얼리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김동문 올림픽 제패 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고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익산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며, 김동문배드민턴체육관과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배드민턴 동호인 1,600여 명이 그동안 갖고뒀은 기량을 겨룬다.

시는 이번 대회가 김동문 협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배드민턴 저변을 확대해 스포츠 중심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문 협회장은 선수 시절 세계 배드민턴계를 제패한 인물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복식 동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복식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김동문 협회장은 빛나는 업적을 남긴 동시에 우리 시 홍보대사로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적을 기리고자 명칭을 변경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화합하고 교류하는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추석 청소년종합대책 가동... 깨끗한 명절 환경 조성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활쓰레기 수거와 환경정비에 나서며 깨끗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는 귀성객에게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선사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청소년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오는 10월 2일까지 읍·면·동별 일제청소와 환경정비 활동을 이어가며, 도심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에는 '시민불편 신고센터'와 공동 청소년을 운영해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한다. 또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는 정상적으로 수거하지만, 10월 5일과 추석 당일인 6일은 휴무일로 지정된다. 시는 10월 4일 수거 이후부터 6일 오후 8시까지의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진 자원순환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로 인한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명절 음식을 알맞게 준비하고 배출 시간을 준수해 주신다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군산시가 시청 직원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25일 군산 청년뜰 청년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구감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2회차(오전 10시~12시, 오후 4시~6시)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18세~39세 청년층 직원을 중점 대상으로 구성해, 청년 세대가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는 이우택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연구원이 맡아 △저출생·고령화 극복 방안 △인구 미래 전략 △지방소멸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에게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각 부서 업무 속에서 인구정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직 사회 전반에 인구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속 시원한 ‘타운홀미팅’ 성료

코스트코 등 주요 이슈 정현울 시장 솔직 답변 시민 신뢰 회복의 장

정현울 익산시장이 시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투명한 시정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정 시장은 25일 오후 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시정 현안에 대해 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아파트 공급 △수변도시 조성 △코스트코 입점 △계약 비리 대응 등 최근 지역사회에서 화자되는 사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고, 정현울 시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진솔하게 답변했다.

우선 정 시장은 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해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익산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주택 수요를 충족시켰다”며 “그로 인해 인구감소 둔화, 가구 수 증가, 출산율 상승 등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며, 부송4지구 데시앙 아파트의 전



세대 분양 사례가 이를 뒷받침 한다”고 미분양 우려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의 행정절차만 시가 지원하고, 위험부담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시가 재정적 손실을 떠안을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하려 “이 사업은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최초로 추진되는 코스트코 익산 입점에 대해서는 “최근 있었던 익산시와 코스트코 간의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의 상생협약 사례”라며 “지역 내 연간 19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2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시민들의 기대를 높였다.

최근 발생한 계약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정 시장은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정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자체 감사 결과로는 개인의 일탈로 파악된다”며 구속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수익계약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향후 모든 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시민들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솔직한 답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시정을 위해 현장에서 주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 위대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백제왕궁 밤하늘 소망으로 밝힌다

내달 5일 소원페스타 개최 29일부터 사전 예약

추석 전날 밤, 익산 백제왕궁이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소원등으로 환히 빛난다.

익산시는 추석 전날인 오는 10월 5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왕궁(왕궁리 유적)에서 ‘한가위 백제왕궁 소원페스타’ 연년의 소원을 담다’를 개최한다

고 25일 밝혔다.

참여는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마수리늘배움협회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800명을 접수하고, 현장에서도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축제에는 시민들이 직접 적은 소원문을 ‘소원등’에 달아 백제왕궁 밤하늘을 밝히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망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진다.

소원등은 금실을 내려놓고 평안과 희망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달맞이, 연등 문화 등의 풍속과 맞닿아 있다.

이에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고 풍요에 감사하는 추석의 의미를 한층 깊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시민들의 소망으로 빛나는 세계유산 백제왕궁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옛 정읍경찰서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임시 공영주차장 48면 10월 1일부터 개방

정읍시가 옛 정읍경찰서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48면을 조성해 10월 1일부터 개방한다.

시는 오는 2026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마쳤으며, 매입 전까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임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으로 장명동 행정복지센터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완화되고, 관광객들의 쉼차차 거리와 도심 상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형버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단



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문제 해소는 물론 쉼차차 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옛 정읍경찰서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은 시민 생활 편

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제할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금융·복지 통합지원 본격화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위기가구 상담·지원 제공

군산시가 25일 일자리 지원센터 내에 ‘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를 공식 개소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국회의장실 윤유선·범

지형 정책비서관,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센터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또한 개소식이 끝난 오후 4시부터는 제20대 국회의원 출신이자 현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으로 활동 중인 제윤경 특보가 ‘금융복지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 제 특보는 △금융취약계층 증가와 채무조정제도의 필요성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과 지역 연계 방향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심도 있게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시민들의 빚 문제와 생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통합 지원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복지기관, 읍면동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약초섬, 명도 팝업’ 열린다

10월 12일까지기념품전시

명도의 자연과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 미니 팝업 행사 ‘푸르고 맑은 약초섬, 명도 팝업’이 10월 12일까지 군산시 월명동 피스 오피스 2층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와 군산 지역 청년 창작자 150스튜디오·지역 창작자 시그르청춘이 협업해 기획했으며, 명도의 자연 자원과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팝업 공간은 총 3구역으로 나뉘어 ‘약초섬 명도’를 다양한 시선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입구 계단은 선

착장 분위기로 관람객을 맞이하며, 관객이 처음 만나는 공간인 ‘약초의 숲’에서는 약초 카드 전시 등을 선보인다.

내부 공간에는 주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엽서, 열쇠고리, 스티커, 아트보드 등 다양한 협업 기념품을 전시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팝업은 명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주민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군산 관광의 가치를 한층 더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1,080명에 1인당 10만 원씩

정읍시는 관내 131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1080명이며, 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전달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복지수당을 지원해 왔다. 또 2021년에는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정부 지원 단체상해공제에 가입시키고, 종사자 본인 부담금 1만원을 전액 지원하며 복지 안전망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첫발’

익산시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익산시는 25일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각 부서장이 참석해 발굴한 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정부 예산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123대 국정과제와 재정운영방침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총 23건, 1조 6,8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은 △인공지능(AI) 융합형

푸드테크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고도역사도시 조성 △목련전조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이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과 맞닿아 있는 인공지능 융합 사업과 자연재해 대응,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최재용 부시장은 “새정부 출범 후 첫 국가예산 사업 발굴인 만큼 정부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성장 동력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IC 회전교차로 확장·안전시설 보강

병목현상과 사고 위험으로 불편이 컸던 정읍IC 회전교차로가 정읍시의 개선사업을 통해 한층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정읍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읍IC 회전교차로 확장·안전시설 보강을 추진해 시민과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에 나섰다.

그동안 정읍IC 회전교차로는 한서요양병원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집중되면서 교차로 내부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와 사고 위험이 뒤따랐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출부 차로를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넓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확장된 차로는 대기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급정지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공사에서는 중앙교통섬의 노후 경계석 교체, 과속방지턱 재포장, 차선 도색 정비 등도 함께 이뤄졌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주행 안정성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이 진행된 것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완화와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주요 교차로와 도로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보수를 이어가며 교통 수요와 도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도로 안전 시설 정비와 교통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하고리 삼태마을숲’, 천연기념물 지정

심덕섭 고창군수 “역사
자연살아숨쉬는 증거
특별한 경험 선사할 것”

전북 고창군과 국가유산청이 25일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의 국가지정 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 행사를 열었다.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은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약 800m에 걸쳐 형성된 전통 마을숲으로, 주변 농경지와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 왕버들 노거수 95그루를 비롯해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그루가 안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200여 년 동안 마을을 각종 재해로부터 지켜온 호안림·방풍림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19세기 고지도인 ‘전라도 무장현도’에 기록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풍수 비보림으로 전해지는 구전과 함께 민속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창농악’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천연기념물 지정 경과와 향후 보존·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간 고창군은 삼태마을숲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기록화사업, 학술조사 및 자료보고서 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국가지정유산 승격은 이러한 고창군의 꾸준한 노력과 삼태마을숲이 지닌 역사적,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하고리 삼태마을숲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고창의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증거이자, 군민 모두의 자부심이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이를 활용해 고창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NH농협 고창군지부, ‘농심전심’ 운동 실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는 지난 24일 고창군 전변 일원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농심전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과 APEC를 맞아 ‘농심전심 운동’ 및 전국적 국민 참여 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고창군지부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방치된 쓰레기, 영농 폐기물 등을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농협은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농심전심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정화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9,405농가·48억 원 규모

부안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48억 원 규모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업인이 기본권을 누리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3~5월 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9,405농가에 대해 △1인 농가는 60만 원 △2인 이상 농가는 1인당 30만 원을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전북특별

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도내 농지 또는 주소지와 연결한 타 시·도 농지에서 1,000㎡ 이상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된다.

또한,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인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며, 기존 카드 사용 농가는 25일 일괄 충전된다. 신규 대상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도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의 추석 전 지급이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52회 고창모양성제’ 준비 박차

1차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고창군은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제52회 고창모양성제’ 1차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가을 대표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고회는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축제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프로그램별 세부계획을 공유하며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각 실·관·과·소와 읍 단위 담당자들이 그간의 업무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맡은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향교, 문묘석전대제 추계 향사 봉행

지역 유교문화 가치 확산

부안향교(전교 최관열)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대성전에서 기관 단체장 및 지역유림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문묘 석전대제 추계 향사를 봉행했다.

이번 석전대제에는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가 초헌관을 맡았으며, 향교 유림이 각각 아헌관과 종헌관으로 참여했다. 향을 피우고 절차를 여는 전례를 시작으로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현(先聖先賢)들에게 차례로 잔을 올리는 헌례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석전대제는 공자(孔子)를 모신 문묘(文廟)에서 선현(先賢)·선사(先師)에게 예를 올리는 유교의 제례 의식으로 1986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부안향교에서 매년 봄, 가을 공자의 기신일(忌辰日)과 탄생일(誕降日)에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정화영 부군수는 “국가 무형유산인 석전대제를 성심껏 봉행해 옛 선현들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전통 문묘의식의 계승·발전과 지역의 총·효·예절과 윤리의식을 위한 프로그램등에 적극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4일 충남 아산시 일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단장 김영미)과 관련자 등 30명이 참여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을 방문해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의 기획과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외암민속마을을 탐방과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학습과 체험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나온’은 전국 최초의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핵심 거점공간으로 조성된 곳이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 시민참여단에게 참고할 만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은 시민의 참여와 공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어 “워크숍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여성친화 정책의 주체로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사랑카드페이백, 민생에 ‘온기’ 더한다

29일부터 실시…전통시장
인지도↑ 동행축제도 열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다가오는 추석과 지평선축제를 맞아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김제사랑카드페이백 이벤트’와 ‘동행축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제사랑카드페이백 이벤트’는 오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석맞이페이백’, 그리고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지평선축제 맞이페이백’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이벤트는 법인 및 단체를 제외한 김제사랑카드를 이용하는 개인 구매자만 해당되며, 행사 기간동안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이며 페이백 금액은 10월 말 김제사랑카드로 충전된다.

9월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을 상향에 따라 김제사랑카드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돼, 행사기간에 김제사랑카드를 이용하면 충전 시 15%



선할인, 결제 시 5% 추가할인으로 최대 20%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동행축제는 김제전통시장의 인지도 향상과 이용객 확대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김제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행사내용은 김제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1일 선착순 150명에게

게임을 통한 경품 지급, 1만원 이상 구매 시 1일 선착순 200명에게는 사은품 제공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제사랑카드페이백과 동행축제는 지역 상권 매출을 늘리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이용 고객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사랑카드이벤트와 동행축제가 시민 여러분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시내버스 학생 100원 요금제 시행

10월 1일부터 초·중·고
학생 대상 전액 국비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교통약자(학생, 고령자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일반 1,000원, 학생 500원)를 도입(2018

년 10월 1일)하고, K-패스 환급 지원 사업(대중교통비 20~53% 환급)을 시행(2025년 1월 1일)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김제시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은 이용요금 100원만 결제하면 된다.(교통카드 결제 시 50원 추가 할인)

이벤트에 시행하는 시내버스 학생 100원 요금제는 김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학생 100원 요금제로 관내 학생

의 교통편의 및 교육 인프라 접근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시 시내버스의 요금 및 운행노선의 자세한 정보는 김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 △차량·교통 △시내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교통 복지 정책을 추진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정신건강의 날 기념 마음안심카페 ‘운영’

스트레스 측정 등 일상속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종석)는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안온가족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음안심카페’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

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및 태블릿PC를 활용한 정신건강 자가검진 △마음안심서비스에서 진행되는 스트레스 측정 △스트레스 해소 풍선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차 한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번달 부안행정복지센터에서 온가족센터로 이전 설치된 ‘무인정신건강검진기’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일상 속 정신건강 서비스

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종석 센터장은 “부안군민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하고, 필요성을 인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 날 행사를 기획했다”며 “또한 오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영호남 ‘한마음’

영호남 의원·도·경찰직장협의회
남원 유치 촉구 연대 기자회견
부지·교통·경제 효과 등 장점 제시

전북 정치권과 영호남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정부가 추진중인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촉구했다.

여야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 등이 영호남 정치권은 이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 상생협력과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남원이 최적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원은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거점으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남원 운봉에 위치한 후보지는 대부분 국유지에 안전한 편지로 구성되어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전북 국회의원 전북 연고 및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원시>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제2중앙경찰학교가 전북 남원에 들어설 경우 △영호남 상생협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경숙, 권영진,

김대식, 김윤덕, 김정호, 모경중, 박희승, 서미화, 서영교, 신성범,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부남, 윤준범, 이성윤, 이원택, 이정현, 이학영, 전진숙, 정동영, 정을호, 조배숙, 주철현, 최형두, 한병도, 허성무 의원(가나다 순)이 참석하거나 연서로 함께 뜻을 모았다.

/서울=김영목기자

완주 새 랜드마크 ‘만경강 물고기철길’ 착공

옛 만경강철교 406m 보행로 조성
비비정 낙조·체험 콘텐츠 연계

완주군이 '만경강 물고기철길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혁신과 전복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 구축에 나선다.

25일 완주군은 오는 10월 1일 오후 4시 30분, 삼례읍 (구)만경강철교 일원에서 '만경강 물고기철길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군민과 관광객, 그리고 완주의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완주의 위대한 전진을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만경강 물고기철길'은 완주군이 전북도, 전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2023년 완주군이 전주시에 제안하며 본격화됐다.

군은 (구)만경강철교 상부에 406m 보행로와 전망쉼터를 조성하고, 전주시는 화전동 일대에 기반시설인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설치한다. 두 시군의 협력으로 경계를 넘어선 통합형 문화·관광 거점을 완성해 전복을 대표하는 관광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만경강 물고기철길'이 완공되면 관광객들은 철길 위를 걸으며 만경강의 절경을 감상하고, 전망쉼터에서 비비

정의 낙조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비비정과 만경강철교를 연결하는 새로운 공간을 완성해 역사와 생태, 예술이 결합된 완주의 핵심 관광벨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삼례 삼색마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례테마공원과 연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생태체험 콘텐츠 등을 확장한다.

유희대 군수는 “전주시와의 상생 협력, 전북도와와의 협업을 통해 주목받는 생태·문화 관광지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보편적 복지 모델, 국회서 우수사례 ‘주목’

입법박람회서 복지 성과 발표
“농촌기반소득 시범 준비 만반”

순창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 성과를 발표하며, 농촌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지방보편민주주의도시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방향을 논의하고, 각 지자체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이 직면했던 인구 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보편적 복지 정책,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가시적 성과를 설명했다. 최 군수는 “민선 8기 순창은 출산에서 노년까지 군민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실현해왔다”고 강조하며, 아동행복수당·대학생 생활지원금·청년 종사통장·농민 기본소득·노인 일자리와 돌봄·의료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



순창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입법박람회' 포럼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 추진 결과 얻은 가시적 성과를 공유했다.

<사진=순창군>

개했다. 특히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농민 기본소득 사업은 올해까지 농입인 1인당 2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순창군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인구 순증을 기록했으며, 출생율은 2023년 79명에서 2024년 98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는 116명이 늘어나며,

군 전체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군민 85.2%가 긍정적으로 답해 정책 효과를 수치로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은 이미 지난 5월부터 행정조직 정비, 조례 제정, 주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오늘 개막…28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서
로컬푸드와 이색 체험 조화의 장

“맛과 멋의 본고장” 완주의 대표축제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26일부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13회째를 맞이한다.

“완주에서 본능을 깨워라! 와일드한 액션, 거침없는 미식여행!”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축제는 그 주제를 살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가 준비됐다.

시원찬 체험은 야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맨손 물고기 잡기와, 섬패들보드, 워터폴러와 같은 수상놀이가 준

비해 체험객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어린이들에게 모험심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프로그램들도 있다. 뎀서기 만들기, 사냥하기, 움집 만들기 등으로 이어지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리틀 와푸족은 작년보다 규모를 늘려 진행되며, 각종 로프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트라이스트림과 스릴 있는 질라인 또한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어린이 사생대회, 신바람 체조대회와 같은 연계행사는 물론, 농특산물 깜짝 경매, 완주 9품 달인을 찾아라, 그리고 올해 처음 선보이는 대형 가래떡 뽑기 등 이색 이벤트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도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올해 축제 무대는 더욱 화려한 공연으로 채워진다. 김희재, 배아현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스킵&하하, DJ 아스더가 와푸뮤지카티로 그 열기를 이어간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황민호&황민우 형제와, 현진우가 무대에 올라 올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외에도 ‘로컬푸드 1번지’ 완주답게 13개 읍·면의 마을 세프들의 손맛이 담긴 로컬밥상과 신선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장터, 그리고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을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운영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독서문화진흥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전국민 대상 진행 149건 접수
18명 수상 27일 수상작 공개

순창군은 군민과 국민이 함께 책의 가치를 나누는 ‘2025년 순창군 독서문화진흥 공모전’ 책에 나를 담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책, 마음 담다’ 손편지 쓰기 부문(일반부, 학생부) △책, 시간을 담다’독서 사진 부문 등 2개 부문에서 참가작을 모집한 결과, 손편지(일반부) 26건, 손편지(학생부) 55건, 독서사진 68건 등 총 149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특히 손편지 부문은 순창군을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 ‘설국잔전’을 지칭 도서로 활용해, 독서 활동

과 함께 지역의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응모작들은 창의성, 주제 적합성, 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올해 시상은 총 18명, 총상금 300만 원 규모로 진행됐다.

손편지 쓰기 부문에서는 일반부와 학생부 각각에서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 원), 우수상 2명(각 20만 원), 장려상 3명(각 10만 원) 등 총 12명이 선정됐으며, 독서 사진 부문에서는 구분 없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등 총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 결과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와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수상작들은 27일 ‘독서의 달’ 기념 행사에서 공개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춘향제 유네스코 무형유산 축전 포럼 성료

유네스코 무형유산 모범사례 도전
춘향제 전승 현장 가치 집중 논의

남원시가 주최하고 (사)무형문화현구원(원장 함한희)이 주관한 ‘2025 춘향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 축전을 위한 국제포럼’이 지난 22일 남원 컨벤션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춘향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사례(Registration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포럼에는 벨기에, 호주, 크로아티아, 인도, 브라질,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의 무형유산 전문가와 유네스코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으며, 국내 무형유산 전문가와 지역 축제 관계자, 연구자들도 함께 토론에 나서 국제적 담론의 장



22일 춘향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모범사례 축전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을 넓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춘향제가 국제적 기준 속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춘향제가 보여주는 살아 있는 무형유산 전승 현상이 국제적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포럼이 남원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무형유산 보호의 새로운 국제적 담론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DFL 드론레이싱 국내 최종 선발전 개최

국제·장관배 대회 마지막 관문
상위 8명 DFL 국제대회 진출

남원시는 27일 전북대 글로컬캠퍼스(구 서남대)에서 DFL 드론레이싱 국내 최종 선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0월 열리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의 ‘국제 드론레이싱대회’와 ‘국토부 장관배 DFL 드론레이싱대회’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DFL(Drone Formula League)은 국토부가 인증한 국내 개발 드론 레이스 리그로,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다. 2025년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서 개발 중인 국산 Class 3(500mm급, 10인치)과 Class 4(200mm급, 3.5인치) 기체를 활용해

경기를 진행한다.

DFL 국제드론레이싱대회는 Class 3 기체로 해외 30여 개국 선수를 초청해 진행되며, 국토부 장관배 DFL 드론레이싱대회는 이번 최종전에서 선발된 국내 선수들이 Class 4 기체로 참가하게 된다.

앞서 1차 대회는 7월 16일 충남 태안군, 2차는 남원시, 3차는 8월 23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4차 대회는 마지막 선발전으로, 통과 선수들은 10월 17~19일 남원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

총 50명 선발 계획이며 상위 순위 8명 선수는 DFL 국제드론레이싱대회에서 해외 선수들과 경쟁하게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풍류’ 전국농악경연 제1회 대회 내달 개최

남원시는 고(故) 류명철 명인의 열과 정신을 추모·계승함과 동시에 농악 꿈나무 육성을 위해 오는 10월 19일 남원시 요천면 특설무대에서 제1회 남원풍류 전국농악경연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개인놀이·사물놀이·전통 연희 등 다양한 종목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총 상금 규모는 1,770만 원이다.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남원시장상이 수여되며, 청소년부 대상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도 각각 마련돼 전국 농악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10일까지이며, 이메일(nwgugak@naver.com)이나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남원시립농악단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청소년부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 개인·단체가, 일반부는 만 18세 이상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및 전수교육 이수자는 참가가 제한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영욱 건축무한 대표
2년 연속 순창 고향사랑기부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유영욱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순창군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유영욱 대표는 고향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2024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히 기부활동을 펼치는 등 선행을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유 대표가 운영중인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은 전주시에서 2021년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전주 새솔유치원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하여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유영욱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 순창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가정위탁 도서 지원
양육 역량 강화

완주군이 10월부터 가정위탁 45세대를 대상으로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 전달 사업을 운영한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위탁부모 또한 양육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위탁부모의 양육 역량을 높이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양육 정보 제공 및 맞춤형 도서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팀의 자문을 받아 연령대별 맞춤 도서를 선정했으며 〈엄마의 말 연습〉(윤지영, 2022년)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우라〉(조신미, 2023년) 〈적절한 좌절〉(김경일·유한옥, 2025년) 〈천 번을 흔들리며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김봉년, 2024년) 등 총 4권을 각 위탁가정에 전달한다.

현재 완주군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100여 명의 아동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연 4회 이상 양육상황점검 및 원가촉구의 면접교섭,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일 케이크 전달, 도자기 체험, 진로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한우가족 한마음대회 11년 만에 열려

400여명 ‘완주 한우’ 발전 다짐
공연·축사로 농가 화합의 장

완주 한우 산업의 발전과 농가 간 화합을 다지는 제2회 완주 한우가족 한마음대회가 최근 고산미소 주차장에서 11년 만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한우협회 완주군 지부(지부장 정봉락)가 주최하고 완주군과 전김안축협, 완주한우협동조합 등 지역기관과 업체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완주 한우농가 가족과 축산 관계자, 지역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완주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의 단합을 함께 다짐

했다.

현재 완주군 한우협회는 회원 500여 명이 활동 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3,500여 명 중 단일 지부 최대 규모이자 화합과 소통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행사는 풍물놀이·고고장고·에델바이스 악단 공연 등 흥겨운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묵념, 지부장 인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봉락 지부장은 “이번 대회가 회원 간 우정을 다지고 명품 완주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립청소년 국악단, '영동세계국악엑스포'서 공연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소리와 이야기로 판소리의 역사를 배우는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관장 김미나 명창)남원시립청소년 국악단이 지난 23일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남원시립청소년국악단은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지난 23일에 참가해 공연을 했다. 주요 공연 내용은 남도시나위가락, 판소리 춘향가 中 사랑가, 흥보가 中 화초장 대목, 민요는 농부가, 강강술래, 까투리타령, 진도아리랑 등을 전 세계 30여개국의 참가단과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뜨거운 호응 속에서 공연을 했다.

남원시립청소년국악단은 남원 초·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됐고, '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관장인 김미나 명창의 지도를 받았다.

김미나 안숙선명창의 여정 관장은 "청소년들의 열정과 헌신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뜻의 뜻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로켓배송 쿠폰' 베이킹 체험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인 '로켓배송 쿠폰' 프로그램을 통해 베이킹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과 만들기 체험하며 진로 탐색 및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로켓배송 쿠폰'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버터스콘과 바스키치즈케이크를 만드는 베이킹 전 과정을 경험하며, 진로와 관련된 깊이 있는 탐구와 직업적 흥미를 유도했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업적 경험을 쌓고 자아를 성장시킬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청소년들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K-water 섬진강댐지사, 60주년 주민 동행 화합 행사

취약가구에 5백만원 기탁

K-water 섬진강댐지사(지사장 채병수)가 섬진강댐 준공 6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학성)과 주민 동행·화합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섬진강댐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기리고 댐 건설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수몰민들의 회생을 기억하며 향후 주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열어 가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행사는 원광어린이집 원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섬진강의 역사를 담은 기념 영상 상영, 취약가구 후원금 전달식(500만원), 축하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정학성 관장은 "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의 100년 또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한국양봉협회 무주군지회, 장학금 259만원 기탁

한국양봉협회 무주군지회가 25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59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벌꿀 판매 수익금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송재철 지회장은 "지역 대표 축제에서 얻은 수익금인 만큼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어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라며 "양봉협회 회원들이 무주의 청정 환경에서 직접 채취한 고품질 벌꿀을 소개·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정읍시 산내면 새마을부녀회, 환경정비 봉사활동 전개

정읍시 산내면새마을부녀회(회장 전은숙)가 능교리 일대에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쳐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25일 산내면사무소 직원과 부녀회원 20여 명은 능교리 회전교차로와 마을 주차장, 소공원 주변에서 쓰레기 5마대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읍=김정인 기자

석전대제 통해 전통문화 계승

진안향교(전교 이한석)와 용담향교(전교 김상기)는 25일에 석전대제를 각각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의식행사로서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진안군에서는 진안향교와 용담향교에서 매년 봄, 가을 2회 치러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지역 내 현관 및 제관, 유림 100여명이 함께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례는 전통에 따라 초헌관 의 전례폐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향교 초헌관으로 참여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석전대제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공동체 결속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전결빈 기자



무주양수발전소, 무주군에 쌀 400 포대 기탁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이하 무주양수발전소)가 쌀 4백 포대(1포대 10kg)를 무주군에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25일 무주읍 나르미사업단에서 진행된 기탁식에서 무주양수발전소는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 2백 포대,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에 1백 포대, 발전소 주변 마을 경로당(무주읍·적상면 15곳)에 1백 포대를 지정 기탁했다.

양해연 무주양수발전소장은 "주

민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쌀을 나누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발전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발전은 물론, 지역 관광자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익산 의료인들, 2,700만원 상당 성금·의료용품 기탁

익산 의료인들이 힘을 모아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나눔을 펼쳤다.

익산시는 지역 개원의들로 구성된 익산시의사회(회장 이태훈)와 (새)이웃사랑의사회 익산지회(지회장 이지영, 미래영상의학과), 익산미즈메세산부인과병원(원장 이희섭)이 총 2,700만 원 상당의 성금 및 의료용품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달된 성금과 물품은 전주교

요셉시탁,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 중증장애인가구지원실 밝은집, 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 은혜의 쉼터, 이리보육원, 보건소 등 지역 복지시설과 기관에 전달된다.

특히 보건소에 기탁된 파스와 의료용품은 건강취약층과 노년층 가정에서 직접 전달되며, 보건소 직원들이 의약품 전달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 건강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 공덕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고구마 나눔 실시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완두)가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봄부터 일군 고구마를 수확하여 사랑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구마를 수확 후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했다. 사랑의 고구마 나눔 사업은 공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수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에 고구마 모종을 심은 후 지속적인 관리를 거쳐 이번 9월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김제=온봉기 기자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희망합니다.

동물의 학대를 방지 하고 생명을 존중 합니다.



〈一事一言〉



국민 불신 자초한 조희대 사법부, 청문회에 서라

김관준
논설위원

민주공화국의 사법부는 국민에게 마지막 희망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을 정의의 보루로 믿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과 거래하고,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며, 법과 양심 대신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복무한다는 의혹만이 가득하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를 방어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입에 올린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궤변이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헌법의 송고한 원리이지, 법관의 잘못을 덮는 방패가 아니다. 독립은 책임과 함께 존재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검증과 비판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정치적 간섭을 거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권력과 손을 맞잡아왔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과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은 그 단적인 사례다. 왜 그토록 서둘렀는가? 왜 다른 사건과는 달리 비상식적 속도로 절차를 밟았는가? 국민은 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공허한 말뿐이다. 이는 헌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남용이자, 사법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끓어오르게

했다. 형사법의 기본 원칙조차 짓밟고 내린 석방 결정은, 사법부가 더 이상 법과 원칙을 지키는 조직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냈다. 왜 형사법 절차를 무시했는가? 왜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 하나 내놓지 못하는가? 답할 수 없으니, 또다시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로 돌려댄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도피다. 책임 회피의 비열한 수단일 뿐이다.

더 가관인 것은 내란 사태 국면에서 정치권과의 은밀한 접촉설이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허무는 일이다.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정치 권력자와 밀실 거래를 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었다. 불리할 때마다 침묵 뒤에 숨어서 독립을 운운한다. 비겁하다. 독립이란 이름으로 침묵과 회피를 정당화하는 순간,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본래 취지는 명확하다. 입법·행정·사법 각 권력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이 원칙을 교묘히 왜곡했다. “사법부 독립 속도로 절차를 밟았는가?”라는 말은 “사법부는 국민과 국회의 검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식으로 곡해한 것이다. 이 얼마나 뻔뻔한 논리인가. 삼권분립은 사법부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을 지면서 정치권력의 개입을 막으라는 의미다.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자기방어에 악용하는 순간, 그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 유린 이요, 삼권 훼손이다. 사법부가 국민 앞에 독립을 말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은밀한 거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가 국민을 향해 독립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쌓아 올린 거짓과 기만의 성벽을 무너뜨릴 국민적 심판의 장이다.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그 즉시 그는 국민 앞에서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출석은 선택이 아니다. 사법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의무다.

헌법 제65조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3조, 법관 독립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정치적 고려 속에서 재판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이자 의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이미 사법부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궤변은 통하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실천해야 할 엄중한 책무다. 독립은 해

명을 회피할 권리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책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의미를 끝내 왜곡하고 외면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통해 그의 권한을 박탈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 헌법 존중과 법 앞의 평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양심과 책임을, 겸허함과 투명성을, 정의 실현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회피와 궤변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번 청문회는 조희대 사법부의 운명을 가를 시험대다. 그는 반드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을 향한 책임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단순하면서도 명징한 진실, 그 첫 걸음을 이제라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땅바닥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사 설

전북 김 옥상양식, ‘K-김’ 산업의 미래를 연다

김은 ‘바다의 금’이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 수산업의 대표주자이자 효자 수출 품이다. 한류 붐을 타고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며 연간 수출액이 1조3천에 이를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근 김 산업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 해양오염, 해역제한 등의 이유로 전통적인 바다양식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의 새로운 미래를 육지에서 찾으려는 전북의 도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수산업의 판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시도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김 옥상양식 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에서 주관 지자체로 선정되며 미래형 김 산업 전환의 중심에 섰다.

바다가 아닌 땅에서 김을 기르는 옥상양식 기술은 환경 제약과 계절성을 극복하며 연중 고품질 생산을 가능케 한다. 이는 단순히 ‘양식 장소의 전환’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수산업으로의 구조 혁신을 뜻한다. 전북연구원의 지적대로, 김 옥상양식은 산업화 가능성이 높고 친환경적이며 식품·바이오·기소재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북수산물연구소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김 종자부터 유염, 물김 생산까지의 전주기 기술 체계다. 이 기술력은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 상용화와 산업화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연구원이 강조한 실증단지 조성과 창업캠퍼스 운영, 민간투자 유치, 기존 어업인과

의 공존 전략은 김 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촘촘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이는 청년과 귀여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력 유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옥상양식의 성공은 단순히 한 지역의 성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된 ‘K-김’ 옥상양식 모델을 조기에 정립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수산업은 더 이상 전통적 1차 산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전북도가 보여준 도전은 김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적 모델이다. 이제 중앙정부와 타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이 길을 확장시켜야 할 때다. ‘K-김’이라는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친환경 생산,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어우러지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은 투자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 옥상양식은 산업구조 전환과 수산정책 혁신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전략 분야다. K-김 옥상양식 표준모델을 조기에 정립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전북도는 김 옥상양식 시대를 이끄는 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김 산업의 새로운 시대, 그 출발점에 선 전북의 실험이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이 바로 전환의 골든타임이다.



오늘의시

그때 / 김용택

하전하고 우울할 때
조용히 생각에 잠길 때
어딘가 달려가 닿고 싶을 때
파란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동동 떠가면
더욱더 저녁노을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동근 달을 바라볼 때
무심히 앞산을 바라볼 때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컵가를 스칠 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할 때
떠나온 고향이 그리울 때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내 그림자의
그 끝에
당신이 서 있었습니

시인 약력 : 1948년 임실 출생. ‘섬진강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다. 자신의 모교인 임실 마암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다. 1982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21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에 ‘섬진강 1’와 8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6년 ‘김수영문학상’, 1998년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2001년 독립단편영화 ‘들’에 이어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 독자광장 |

첨단 기술, 한국 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다



최근 우리 농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기술적 특이점’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성 제고, 그리고 유통 구조의 투명성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쌀농사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정밀농업 기술을 통해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는

기존 인력 작업보다 약 10배나 빠른 속도로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약제를 살포하며, 농약 사용량까지 줄여줍니다. 이는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처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농작물 생육 상태와 토양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맞춤형 재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가 병충해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농민의 부담은 줄고 수확량과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쌀 유통 분야에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QR코드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쌀 이력 추적 시스템은 소비자가 쌀의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합

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프리미엄 쌀 시장을 확대하고, 쌀 산업 전반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AI가 쌀 생산량과 품질을 예측하여 농가별 맞춤형 재배 계획을 제시한 결과, 연간 생산량이 15%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드론과 센서를 활용한 최적인 관개 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20%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고령화된 농업 인구가 디

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 도입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공익직불제 같은 직접적인 도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쌀 산업의 미래는 기술 몇 가지를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AI와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농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 농촌 곳곳에서 시작된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물결에 농업인, 연구기관, 정책 당국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한국의 쌀 산업은 과거의 유산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방농업연구사 이인석

송영구 신도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기록유산, 금석각류, 비
- 시대 - 조선시대
- 지정일 - 2015년 7월 17일
- 소재지 -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 2-1



문화재 열전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5.09.26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광주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8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시-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8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전주의 미래 100년 먹여 살릴 경제 심장부로!

지난 반세기 이상 전주의 심장부였던 옛 전주종합경기장 일대가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문화와 관광, 마이스산업, 시가반 콘텐츠 등이 한데 어우러진 전주 경제의 새로운 거점이 된다.

시는 이곳에 다양한 마이스산업 인프라와 문화시설 등을 집적화해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꿈틀거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미래 광역도시 전주의 100년을 책임질 경제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컨벤션센터 시작으로 호텔과 판매시설 등 마이스 인프라 건립 예정

△컨벤션센터·호텔 등 마이스 인프라 '집적화'

전주시는 강한 경제 전주의 심장부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주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핵심 시설인 전주컨벤션센터는 1만㎡ 전시장과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2개 중소회의실 및 회의 공간, 1만㎡ 규모의 다목적 광장 등을 갖추고 오는 202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이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국제회의와 전시, 세미나 등 대형 마이스 행사를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는 전주컨벤션센터와 더불어 호텔과 판매시설 등 다양한 마이스 지원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특히 호텔과 판매시설은 최신 시설로 갖출 계획이며, 인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앞으로 전주형 마이스산업을 뒷받침하게 된다.

△한문화의 중심, 전주의 문화가 모인다!

옛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는 전주컨벤션센터 등 마이스산업 인프라와 더불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과 전주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도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은 옛 야구장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47억 원 등 총사업비 403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7367㎡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건물 지하 1층에는 △공공제작 콘텐츠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주제전시관 △국내외 우수 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는 기획전시실 △물입영상관(5면)이 갖춰진다. 또, 대표소와 카페(1층), 사무공간과 콘텐츠 제작지원실(2층)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시관이 개관하면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매력적인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창작자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AI를 활용해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G-타운'과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문화시설 집적화를 통해 시민과 마이스 관광 등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만의 색다른 볼거리

와 즐길 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움직이는 전주의 심장부로!

전주 교통의 대동맥인 기린대로와 백제대로가 만나는 곳에 자리한 전주종합경기장은 오늘날에도 전주의 교통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지난 1963년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져 만들어진 이후 증축을 거쳐 지난 60여 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체육 거점으로도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펼쳐져 많은 시민들이

추억을 만들어왔다.

시는 앞으로 전주컨벤션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마이스 기반 시설과 관광 인프라, 문화시설들이 갖춰지면 1년 내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람이 모이면 경제가 살아 숨 쉬고, 이는 곧 산업으로 연결된다. 시는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 축을 갖게 된다. 전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주마이

스북한단지를 찾는 발길은 덕진공원과 팔복예술공장, 한옥마을, 아중호수 등 전주 전역으로 이어지기 용이하다.

무엇보다 전주에 마이스 거점시설이 생기면서 전주시뿐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규모 있는 국내외 행사를 자신감 있게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 전주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전주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과 친환경 인프라,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마이스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컨벤션센터조감도



관광호텔조감도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조감도

..... [인터뷰] 우범기 전주시장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희망과 미래의 문 '활짝'

우범기 전주시장은 "60여 년 전, 십시일반 시민들의 땀과 노력을 모아 지어진 종합경기장은 오랜 세월 전주와 전북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사랑을 듬뿍 받아왔지만, 거센 산업화와 정보화 물결 속에 자연스레 쇠락의 길에 들어섰다"면서 "이제 60년을 돌아 개발 흐름에서 밀려나 있던 전주가 이곳 종합경기장의 역사를 밑거름으로 문화관광, AI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의 심장부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이 순간이 있기까지, 미래 가능성과 시민들의 간절함을 믿고 행정력을 모아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면서 "전주가 변해야 한다", "변해야 산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들과 관계 부처, 국회의원 등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전주컨벤션센터가 완공되면 331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6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 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희망과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며 "오늘 기공식이 머지않은 미래에 전주의 경제와 환경,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전주는 앞으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전주형 MICE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주의 심장이 더 힘차게 뛰게 될 그 날까지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